Life-Changing Small Group

목장 모임 인도자가이드

2021. 4. 11. 주일설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의 선택"** (시 1:1-6)

DONGAN CHURCH

말씀 나눔과 적용(Word)

1. 시편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함께 나눠봅시다.(시1:1, 엡2:1-3)

☞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육신의 정욕과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어서 결국은 하는 모든 일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기에 인생의 결국은 헛되다 고백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불면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2.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인생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름을 분별하십니까? (시1:2, 벧전1:24-25, 시119:105)

☞ 하나님 말씀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하며 불변하는 진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때문에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시1:2)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뜻에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정성을 다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 '주야로 묵상한다'의 원어의 뜻은 '읊조리다', '마구 소리를 지른다', '으르렁 거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읊조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음미하며 낮은 소리로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맹수가 사냥감을 앞에 두고 으르렁 거리듯이, 그 말씀이 내 삶의 구원과 진리의 기준이 되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필사적으로 살아내겠다는 몸부림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3.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어떠한 길을 선택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시1:3, 대상4:10)

☞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주변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변이 아무리 가뭄으로 타들어가고 모진 바람이 분다고 할지라도, 그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면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고 자신이 맺어야 할 열매를 시절에 따라 맺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힘겨운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말라 시들어버리지 않습니다.

☞ 성경이 말하는 '시냇가'는 비가 와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개천이 아닙니다. 농부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획과 방향에 맞게 고랑을 파서 만들어낸 개울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른 길, 형통함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넓은 길이라고 성공과 행복한 길을 걷는 삶이 아니며, 빠른 길이라고 해서 편하고 우위를 살아가는 인생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그리스도를 향하고 말씀으로 기준 되어 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길, 형통의 길을 걷는다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며, 어떠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